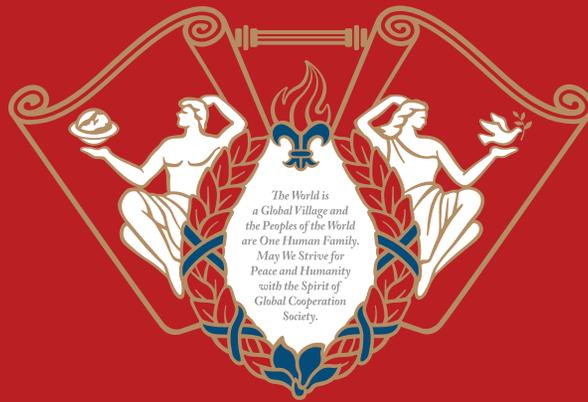


2025

# 학문과 평화

대학다운 미래대학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가곡 ‘목련화’에 담긴  
경희의 얼 “새 시대의 선구자”



## 변화와 창조를 향한 힘을 모으고 그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라

“오~ 내 사랑 목련화”로 시작하는 가곡 ‘목련화’의 노랫말은 경희학원 설립자 故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이 곡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선구적 의지와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일궈나가자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뜻은 경희의 열과 정신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목련은 시대와 세월의 고초를 헤쳐가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선구적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과 심성을 가꾸어 가자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헤치고 온 봄 길잡이 목련화”, “희고 순결한 그대 모습”, “함께 피고 함께 지니 인생의 귀감”이라는 목련화의 노랫말은 이러한 정신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경희는 목련을 교화로 삼아 그 뜻과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여정

1949년, 경희의 역사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경희는 전쟁의 총성을 피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1951년 부산 동광동의  
 판자 교사 세 채에서 학생 122명, 교원 17명,  
 직원 5명과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반도의 신생 대학.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희는  
 무(無)에서 유(有)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오늘날 경희는 학생 3만 4,342명, 교원 1,395명,  
 직원 1,170명의 명문 사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희의 남다른 가치와 전통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가 자리합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소명이 존재합니다.  
 그 다짐은 교가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온오한 학술연구 온갖 노력 바치고  
 변전하는 세계의 진리를 연구하여 (...)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세”  
 앞으로도 경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과 창조의 여정,  
 경희만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1949 ——— 1979

##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체계 구축

###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다

경희학원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6·25 전쟁 중에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교육입국·教育立國)는 뜻을 세우고, 1951년 5월 18일 신흥초급대학(1949년 설립)을 인수했습니다. 피란지 부산에서 태동한 경희는 1954년 서울캠퍼스 시대를 연 데 이어 1960년 교명을 신흥에서 ‘경희(慶熙)’로 개명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유아 교육에서 대학원 교육까지’라는 구상과 함께 유치원, 초등학교, 남·여 중고등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가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인교육의 철학과 비전이 일관된 교육체계, 전일적 학술체계 ‘학교법인 경희학원’ 체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5. 4. 27

한외과대학 전신인 동양외과대학 합병  
경희의료원 착공식 개최

1965. 6. 29 ~ 7. 3

경희학원 설립자가 결성 주도한  
세계대학총장회(IAP) 창립총회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개최

1966. 5. 18

잘살기 운동 헌장 제정 및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

1968. 6. 18 ~ 20

세계대학총장회(IAP) 제2차 회의  
경희대에서 개최



1949. 5. 12

신흥초급대학(2년제) 설립 기인가

1951. 5. 18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신흥초급대학 인수,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 탈고

1951. 8. 20

부산 동광동 교사 신축 및 개강  
교훈 ‘학원의 민주화·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발표

1952. 2. 3

신흥초급대학(정규대학) 설립 인가

1952. 12. 9

신흥대학(4년제 정규대학) 설립 인가

1953. 3. 1

교가 제정(작사 조영식, 작곡 박태준)

1953. 3. 20

부산 동대신동 소재 신교사 낙성 이전

1953. 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교지 30여만 평 확보

1954

국내 대학 최초의 마스터플랜 수립

1954. 3. 24

피란지 부산에서 서울로 복귀

1954. 7

문맹퇴치운동, 조림녹화사업 등  
농촌계몽 봉사활동 전개

1955. 2. 28

신흥대학교(4년제 종합대학) 설립 인가

1960. 3. 1

교명을 ‘경희대학교’로 변경

1964. 10. 2

제9회 학원제에서 경희학원 설립자의  
개교 50주년·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 채택



1971. 10. 5

경희의료원 개원

1975. 10. 28

밝은사회운동 전개

1976. 3. 30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개원

1979. 1. 10

수원캠퍼스(현 국제캠퍼스) 교지 확보 및  
설립 인가

1979. 5. 18

개교 30주년 기념 ‘경희의 탑’  
(밝은사회운동탑, 잘살기운동탑) 제막

1979. 10. 28

경희대-로마클럽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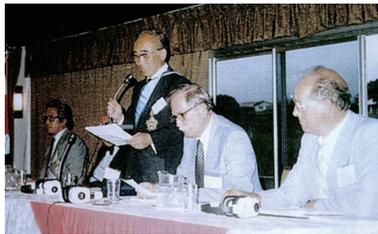


1980 — 2008

## 경희의 평화사상을 세계로, 미래로

‘유엔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을 주도하다

1980년대 들어 국제캠퍼스와 광릉캠퍼스가 새롭게 태동했습니다. 경희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의학, 공학, 예술, 체육 등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명문사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도 내디뎠습니다. 1981년 경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해’가 제36차 유엔 총회에서 15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결, 선포됐습니다. 세계대학총장회(IAUP) 결의를 통해 유엔에 전달된 이 제안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회고했듯, 동서 냉전이 종식을 고하는 데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희의 평화사상은 교육과 연구, 실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1. 6. 28 ~ 7. 3

경희학원 설립자 제6차 IAUP 총회에서 ‘유엔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 제안

1981. 11. 30

경희학원 설립자가 제안한 ‘유엔 세계평화의 날/해’가 제36차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통과·제정

1982. 9. 21

제1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개최 (이후 매년 국제회의 개최, 2004년부터 Peace BAR Festival로 확대)

1984. 9. 25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 개원

1986. 4. 30

세계 최초 『세계평화대백과사전』 발간 (영국 Oxford Pergamon Press)

1986. 5. 13

유엔 세계평화의 해 기념식·국제학술회의 개최

1986. 12

세계 최초 『세계시민교과서』 발간

1993. 6

남북이산가족 재회촉구 범세계 서명운동 전개

1993. 12. 10

평화복지대학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수상

1998. 9. 24

새천년 지구공동사회 대헌장 제정 세계 지성, 지도자 100인 지지·참여



1999. 10. 10

1999 서울NGO세계대회 개최

1999. 10. 11

평화의 전당 개관

2000. 11. 30

경희사이버대학교 설립 인가

2001. 9. 28

새천년기념탑-네오르네상스문 준공

2006. 6. 12

동서신의학병원(현 강동경희대병원) 개원

2007. 7. 30

수원캠퍼스, ‘국제캠퍼스’로 명칭 변경



2009

# 대학의 사회적 책무, 지구적 확산

## '지구적 존엄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 비전 선포

경희는 2009년 6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했습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지구적 존엄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이라는 비전과 함께 창학 초기부터 펼쳐온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교육, 연구, 실천 역량이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경희는 비상했습니다. 2007년부터 4년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59계단 뛰어올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대학'으로 평가됐습니다. 상승 추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상 강화는 학생 만족도로 이어져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5년 연속(2015~2019) 사립대 2위에 올랐습니다. 경희가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09. 5. 5 ~ 8

세계시민포럼(World Civic Forum, WCF), 세계시민청년포럼(World Civic Youth Forum, WCYF) 개최

2009. 5. 6

개교 60주년 기념식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지구적 존엄 구현 (Towards Global Eminence)' 개최

2009. 12. 31

석학초빙제도 ES(Eminent Scholar)·IS(International Scholar) 도입

2010. 9. 1

지구사회봉사단(현 글로벌봉사팀) 출범

2011. 3. 1

교양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2011. 5. 17

유네스코 석좌기관(UNESCO Chair) 지정

2011. 8. 24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서울·국제캠퍼스 통합 운영 승인

2011. 9. 15

유엔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서울 평화의 전당과 뉴욕 유엔본부에서 동시 개최

2012. 12. 21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선포

2013. 3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사업 출범

2013. 5. 18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발간

2015. 5. 22 ~ 24

세계대학총장회(IUP) 창립 50주년 기념식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공동 주최

2015. 6. 5

「경희대학교 미래대학리포트」 발간

2017. 5. 17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선승관' 개관

2017. 12

캠퍼스 종합개발 'Space21' 1단계 완공

2018. 10. 5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원

2018. 12. 31

서울캠퍼스 본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2019. 3. 4

신입생 전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도입

2021. 5

2026년 발사 앞둔 NASA 무인 달 착륙선  
과학 탑재체 개발 참여

2022. 3. 2

빅데이터융합학과, 인공지능학과,  
스마트팜학과 신설

2022. 5. 12

AI 서버실·X-Space 개소

2022. 8. 5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경희대가 개발한 자기장측정기 탑재

2022. 11. 21

융합기술연구원 개소  
9대 중점 융합 분야 대응 융합센터 설치

2024. 3. 4

반도체공학과 신설

2024. 10. 23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신설(센터장:  
노벨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2025. 3. 4

열린 전공(자유/자유전공학부) 개편·신설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신설

2025. 6. 18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19위

2025. 11. 12

세계 상위 1% 연구자(HCR) 4명 선정  
국내 종합사립대 3위



# ‘문화세계 창조’를 향한 ‘대학다운 미래대학’

Towards Global Eminence 2030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를 상징화한 본관 부조상.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달하는 것이 경희의 설립 정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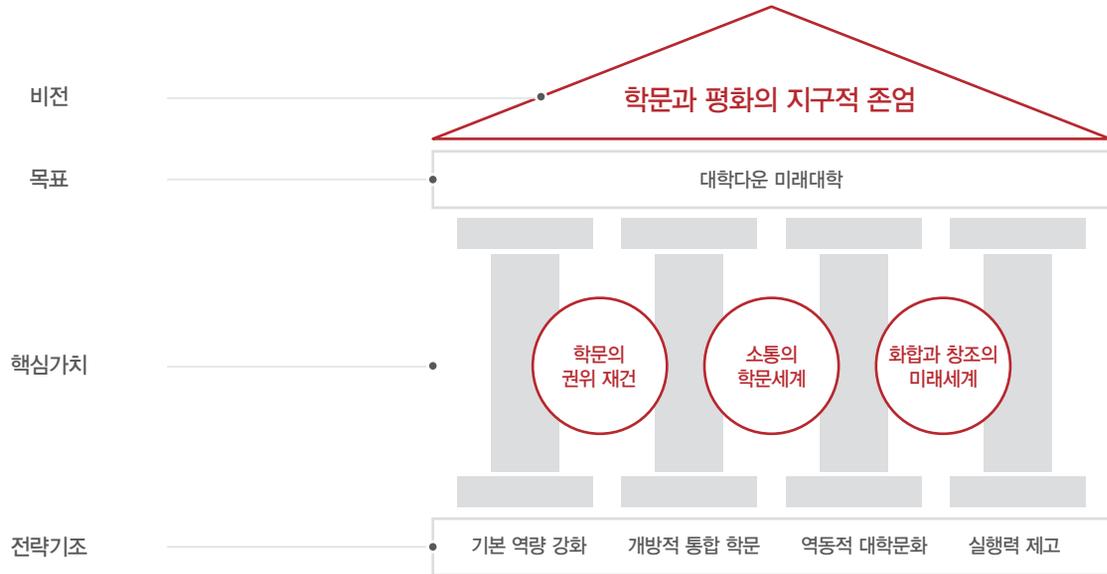
경희는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학문과 실천의 탁월성을 지향하며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경희만의 역사를 써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길, 더 나은 인류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 온 경희의 여정은 언제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했습니다. 그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대학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모색하는 일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주시하며 대학의 존재 이유를 묻은 경희는, 대학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세계의 창조’를 향한 대학다운 미래대학 Towards Global

“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가치와 전통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과 창조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

Eminence’를 미래비전으로 수립했습니다.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경희 정신을 더 크게 키워, 학문적 탁월성에 더해 미래사회에 기여하는 공헌의 토대를 굳건히 만들어 가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류문명, 미래과학, 바이오·헬스, 문화예술, 사회체육 등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연구·실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며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 미래비전체계도



##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 2025 THE 대학 영향력 평가(THE Impact Rankings 2025)



경희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를 반영하는 'THE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19위에 올랐습니다. 11개 목표는 세계 50위권을 달성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19위·사립대 1위, 전 세계 상위 1% 이내 진입  
17개 전 항목 세계 순위권 진입...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다각도 기여

경희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19위·세계 사립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평가는 S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해 대학의 공공성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입니다. 경희는 전 항목에서 순위권에 올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온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아 해소, 양질의 일자리·경제성장, 지속 가능한 도시·지역사회, 빈곤 종식,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산업·혁신·인프라, 깨끗한 물·위생, 책임 있는 소비·생산, 건강·복지, 육상생태계 보존, SDGs를 위한 파트너십 등 11개 목표에서 세계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경희는 기술 상용화와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교수와 학생이 창업한

“  
나날이 커지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대학에 주어진 책무 중  
하나입니다.  
”

기업들이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5'에 참가하는 등 창업 성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문제중심학습(PBL) 교육 모델을 실현하고, 런케이션(Learn+Vacation)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하며 미래대학의 길을 열어온 경희는, 글로벌·공공 협력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교육·학술기관, 국제기구, NGO, 정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문명의 미래에 기여하는 연구·학습·실천 과제에 집중하며 세계시민, SDGs·ESG 전문가 양성에 힘쓸 것입니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대학

‘QS 세계대학평가’ 4년간 259계단 올라…상승 추이 이어져  
학생 만족도 조사 5년 연속 사립대학교 부문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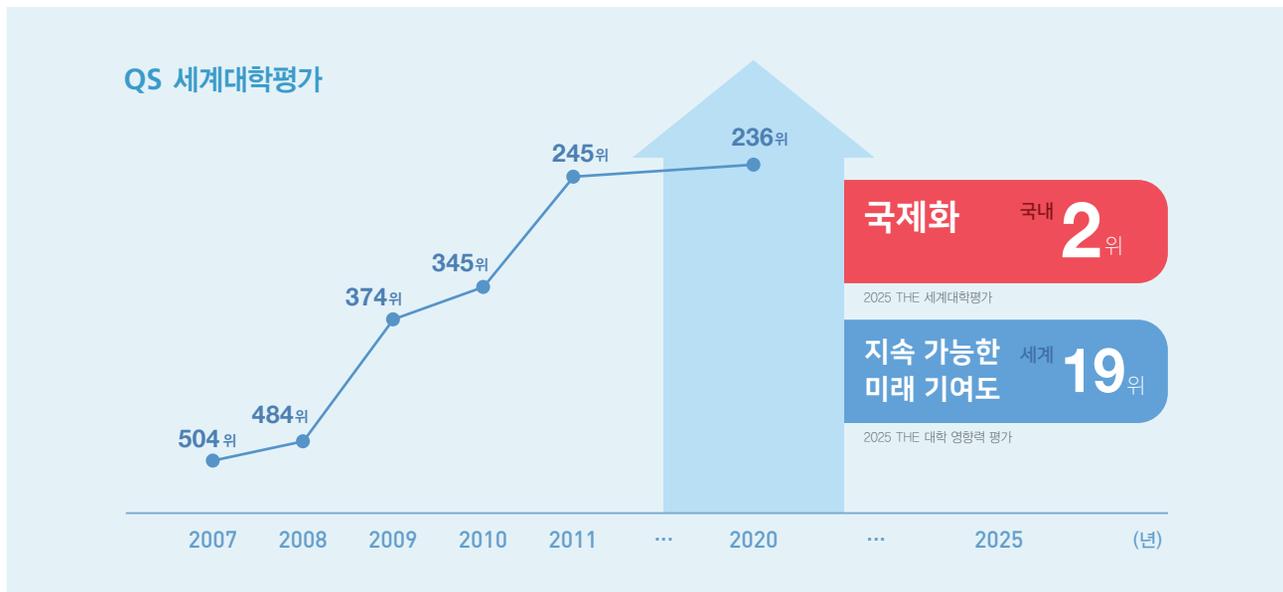
경희는 2007년부터 4년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59계단 뛰어올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대학’으로 평가받았습니다. THE 세계대학평가에서도 2015년 431위에서 2020년 266위로 165계단 순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2025년 발표된 THE 세계대학평가에서는 세계 252위·국내 종합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위상 강화는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희는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 5년 연속(2015~2019) 사립대 2위에 올랐습니다.

위상 강화의 중심에는 경희의 연구력이 자리합니다. 스마트관광원 구철모·정남호 교수, 생물학과 배진우 교수, 컴퓨터공학부 홍충선 교황명예교수 등 4명의 교수가 ‘2025 세계

“  
경희는 세계 상위 1%  
피인용 우수 연구자  
(HCR)를 배출하며,  
국내 종합사립대 3위의  
연구력을 입증했습니다.  
”

상위 1% 피인용 우수 연구자(HCR)로 선정되며, 경희는 국내 종합사립대 3위의 연구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우주과학과 선종호 교수 연구팀은 한국 최초의 기상 관측 전용 위성 ‘천리안 2A호’의 우주 기상 탑재체를 개발한 데 이어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50여 년 만에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과 진호 교수 연구팀은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에 탑재된 자기장측정기 개발을 맡아 한국 우주 탐사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탑재체는 다누리에 실린 6개 탑재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 학문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학

전 학문 분야 고루 발전, 세계적인 학과 늘어...호텔관광학 세계 17위  
호텔관광학, 통신공학, 식품공학, 교통공학 국내 1위 달성

경희는 각 학과와 단과대학(원)의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존중하는 대학 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이루내는 것이 대학의 근본 가치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등 전 학문 분야가 고루 발전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문 분야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학문 분야의 탁월한 성취는 대학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교통대가 매년 발표하는 학문 분야 평가 'Global Ranking of Academic Subjects(GRAS)'에서 경희는 2025년 △호텔관광학 세계 17위 △통신공학 세계 31위 △식품공학 세계 51~75위 △교통공학 세계 76~100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학문 분야에서 모두 국내 1위를 기록하며 학문적 탁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경희는 '2025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에서도 역대 최다인 32개 학문 분야가 세계 순위권에 오르며 연구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과학, 바이오헬스, 양자과학, 첨단소재, 인공지능(AI), 인류문명 등 6대 분야와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두드러진 순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호텔관광학을 비롯해 언어학, 석유화학, 치의학 등 4개 학문 분야가 세계 100위권, 현대언어, 간호학, 국제개발, 정책·행정학, 스포츠관련학, 농·임학 등 11개 학문 분야가 세계 200위권에 올랐습니다.

### 2025 상해 학문 분야 평가(GRAS)

순위	학문 분야
17	호텔관광학(국내 1위)
31	통신공학(국내 1위)
51~75	식품공학(국내 1위)
76~100	교통공학(국내 1위)
101~150	전기전자공학(국내 3위), 치의학(국내 3위)
151~200	수학(국내 2위), 화학공학, 나노과학, 에너지공학, 약학



# 모든 의학 계열 단과대학을 갖춘 대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에 이르는 종합의학 계열 확립  
의학 계열 단과대학 5개 · 의료기관 2개 운영

경희는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을 포괄하는 종합의학 계열 체계를 국내 최초로 확립했습니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 등 5개 의학 계열 단과대학을 갖추고,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개원해 '질병 없는 인류사회'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서의학, 기초와 임상, 학문 경계를 넘어서는 진료, 연구, 교육, 봉사활동을 펼쳐 온 의학 계열 단과대학과 의료기관이 연구 · 혁신 · 환자 중심 체계를 통해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은 양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

“  
경희의 의학 계열  
단과대학과  
양 의료기관은  
동서의학, 기초와 임상,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료, 연구,  
교육,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

다. 이러한 교육 탁월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의료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연구 중심 병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학 계열 단과대학이 함께하는 독보적인 학제 간 협력 구조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 질 평가'에서 각각 상급종합병원 상위 2%, 종합병원 상위 1%에 선정되며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경희의료원 앞 잔디광장에 세워진 '건강의 여신상'. 건강의 여신상은 "환자에게 인력함을 제공하고 인류를 보듬는다"는 '경희 의학'의 의지와 미래상을 표현합니다.

##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주도한 대학

1981년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 제안, 평화 향한 큰 전진  
교육·연구·실천으로 이어지는 경희의 평화사상



유엔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입니다. 경희는 세계평화의 날(9월 21일) 제정을 기념해 매년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합니다.

9월 21일은 세계평화의 날입니다. 유엔은 1981년, 세계평화의 날과 함께 세계평화의 해(1986년)를 제정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동서 냉전이 극에 달해 전쟁 발발이 우려되던 시기였습니다. 세계평화의 해 첫날, 미국과 소련 정상은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군축 회담을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평화의 날/해는 냉전 시대를 종식시킨 하나의 계기로 평가받습니다.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입니다.

조영식 박사는 1981년 7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제6차 세계대학총장회(IAUP) 총회에서 “유엔이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 총장 600여 명은 전원일치로 이 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에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경희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해 11월 제36차 유엔 총회는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안을 15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文化世界(문화세계)의 創造(창조)'가 새겨진 교시탑

###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세”**

경희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평화로운 미래사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학문적 소임을 다하되, 그 학문이 더 나은 인류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희의 학풍입니다. 그래서 경희의 교가는 “온오한 학술 연구”를 노래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의지,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세”를 호소합니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

학생은 더 나은 미래, 더 큰 미래를 꿈꾸며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상상력, 창의력, 실천력을 키워 나가고, 교수는 석학, 대가, 거장의 꿈을 추구하는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학생과 교수는 함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며 해결해 나가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대학’. 이것이 경희가 추구해 온 대학의 참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대 학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 역량 강화의 결과, 경희는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 5년 연속(2015~2019) 사립대학교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사진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교육 콘텐츠를 도입한 강의 모습

### '더 많은 미래, 더 나은 미래'

경희가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더 많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를 기조로 새로운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교양·전공·실천 연계 강화한 경희 교육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자 학술기관으로, 교육, 연구의 탁월한 성취를 쌓아가는 것이 본연의 책무입니다. 경희는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학술과 실천을 결합하면서 문명 전환을 선도해 왔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융합형 전공교육을 실시하고, 학술 성취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사회와 세계로 이어지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계시민 의식 함양과 지구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교육, 연구, 실천을 결합한 사회공헌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지구적 실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실천 및 봉사활동과 연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더 많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힘을 키워줍니다.

---

##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후마니타스' 교육

후마니타스(Humanitas)는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내포합니다. 경희는 교양교육을 혁신하면서 후마니타스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경희의 후마니타스는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변모시키고 재발명해 나가는 인간이자,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을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입니다. 이를 위해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문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합교육,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교육, 구체적 현장과 연계되는 실천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인류 문명과 우주를 탐색하며 사유의 폭을 확장하고, 세계시민 의식과 역량을 키워갑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 창의적 연구·실천 영역을 학생 스스로 개척하는 독립연구 등을 통해 확대됩니다.

---

## 국내 대학 최초 시행 전교생 '세계시민교육'

경희는 국내 대학 최초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글로벌 차원에서 구성되는 삶의 존재 조건을 이해하면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방안을 탐색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토론하고, 공동 프로젝트(GCP; Global Citizen Project)를 통해 그 사유를 실천으로 확장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마주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 첨단학과 신설· 무전공 입학제 도입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전공 탐색 기회 확대를 위해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무전공 입학제를 도입했습니다.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과학과, 전자정보대학 반도체공학과에 이어 이과대학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를 신설했습니다. 2025학년도에 무전공 입학제를 도입해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 진로를 찾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무전공인 자율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1년간 다양한 전공을 폭넓게 탐색한 후,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계열에 상관없이 캠퍼스별로 개설된 학부(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부 학부(과) 제외).



경희는 학생들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융합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오비스홀 모습.

##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 스스로 과제 설정·수행

학생들은 경희 캠퍼스에서 융합형·사회맞춤형 교육에 참여하며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합니다. 학과, 단과대학, 캠퍼스를 넘나드는 융합전공과 다전공을 확대했습니다. 기업과 손잡고 사회맞춤형 트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독립심화학습,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이 관심 주제를 선정해 지도교수와 함께 심층 탐구하고, 최신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경희는 미래교육으로 대전환하고자 학사구조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시와 데이터 분석 교육을 강화하고,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와 학생설계전공을 도입했습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사회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직무를 위한 특화 교육입니다.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진로와 관심 분야에 따라 전공을 설계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사회진출교육

경희는 취업과 창업, 창직(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활동)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사회진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삶의 주인으로, 지속 가능한 문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학협력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사회진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경희의 취업률은 2021년 66.3%, 2022년 68.9%, 2023년 70.7%로 상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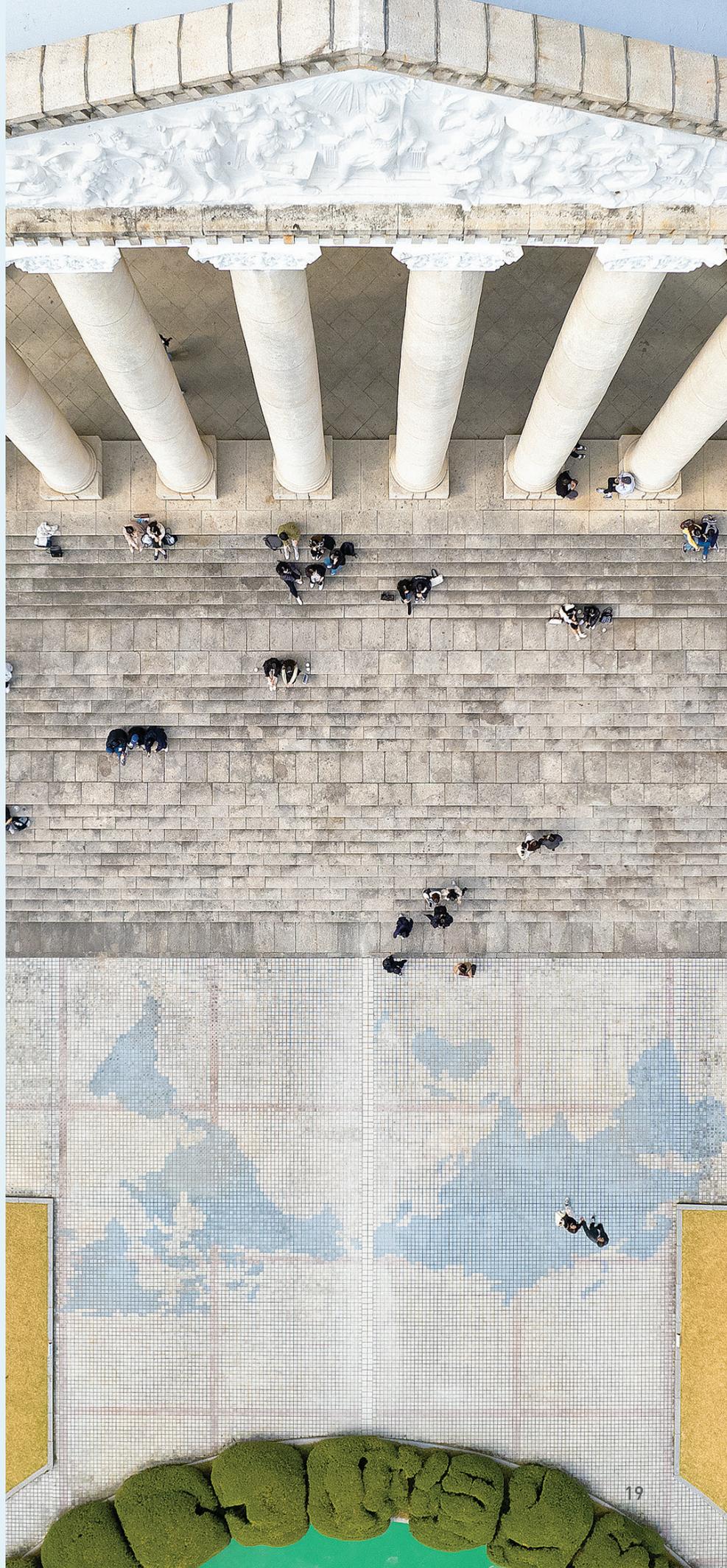
## 꿈에 도전하면 지원하는 특별한 장학금

경희는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특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의 교내 장학금 규모는 서울 소재 대학 1위입니다(2025년 대학정보공시 장학금 수혜 현황 기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348만 원에 이릅니다.

## 세계적인 대학 · 대학다운 대학

'세계적인 대학'은 경희가 품어온 오랜 꿈입니다. 대학의 궁극 목표인 진리를 깊이 탐구 하면서 탁월한 학술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이러한 대학의 본령과 함께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실천적 책무를 다하는 대학. 이것이 경희가 지향해 온 '세계적인 대학', '대학다운 대학'입니다.

(사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은 순수 국내 기술로 지어진 석조 건물입니다. 본관 중앙부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741호에 등재됐습니다.





우주에 도전하는  
경희 연구력



## 우주 기상 연구에 이어 달 탐사에 도전하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2022년 8월 5일 오전 8시 8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다누리는 달 궤도를 돌면서 달 착륙 후보지 탐색, 자기장 측정, 달 자원 조사,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달 표면 편광 지도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 6개의 과학 장비가 실렸는데, 이중 자기장측정기를 경희가 개발했습니다. 다누리 탑재체 중 유일하게 대학에서 개발한 탑재체입니다. 경희의 연구력이 우주로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천문대

### 지구적 난제 해결에 나서다

경희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보편 가치를 창출합니다. 기후변화, 생태·환경 위기 등 지구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실용적·실천적 신지식을 창출하는 동시에 세계 수준의 수월성을 유지하는 연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대학의 연구 역량, 기후 문제 해결· 난치병 치료에 활용

경희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술·실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희의 연구력이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술 역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새로운 융복합 분야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내외 교육·학술기관,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경희의 설립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계승하며 인류와 문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경희가 학술 역량을 결집해 기후 위기, 식량난, 에너지 고갈, 팬데믹, 난치병 문제 등 지구적 난제 해결에 나선 것입니다.

---

## 동영상 압축 기술 국제표준 특허 선점

그간 경희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학부 과정에 디스플레이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다수의 '세계 최초' 연구 성과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동영상 압축 기술 분야에서도 연구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특허를 선점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이어 전 세계 대학 가운데 세 번째로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국제표준 특허를 확보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술은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고화질 영상을 빠르고 매끄럽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신공학 분야에서는 국내 대학 최초로 5G 특화망을 운영한 데 이어, 6G 무선통신·양자통신·AI 기반 통신 등 차세대 핵심 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선정돼 양자통신 상용화를 위한 기술 한계 극복에 도전하고 있으며, 차세대 이동통신 대학 ICT 연구센터(ITRC), 차세대 통신 기초연구실, 융복합 에너지 자율형 센서 대학 중점 연구소, 바이오헬스 ITRC 등 국가·산학 과제를 유치해 연구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력 향상에 따라 기술이전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학 정보공시 기준으로 기술이전 수입료는 전국 대학 2위를 기록했습니다.

---

## 학문 간 벽 넘나드는 창의·융합형 연구 주력

경희는 최근 미래사회를 이끌 융복합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를 구현하고 지구적 난제에 도전하는 창의·융합형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4차 산업시대 핵심 가치인 융합을 실현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전공과 학문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협력하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커넥티비티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빅데이터 △실감미디어·디지털트윈 △에너지·환경 △우주·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 △스마트팜 △양자정보 △에이저테크 △인공지능건축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 △기후환경디자인 △넷제로에너지 인프라 △양자나노재료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산하에 16개 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융합연구·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 기술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NASA 무인 달 착륙선 과학 탑재체 개발 참여

2022년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에 경희 기술력이 탑재됐습니다. 다누리에는 과학 탑재체 6종이 실렸는데, 이중 자기장측정기를 우주과학과 진호 교수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다누리 탑재체 중 유일하게 대학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다누리가 발사된 후에도 국제협력 연구를 지속해 2024년 달 뒷면에서 특이한 자기장 특성을 보이는 이름 없는 충돌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구에 조선시대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남병철의 이름을 붙일 것을 국제천문연맹(IAU)에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달 충돌구에 한국인 이름이 붙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경희는 다양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주관하는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가 대표적입니다. CLPS는 50여 년 만에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은 탑재체 4종 개발을 맡았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개발된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가 2023년 미국으로 이송된 후 기능시험을 마쳐 2026년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탑재체를 우주과학과 선종호 교수 연구팀이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성수 교수는 CLPS 달 표토 3차원 영상카메라(GrainCams) 개발의 과학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 '한국 최초'의 도전에 힘 실는 경희 기술력

경희는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WCU) 육성사업, BK21 사업 등 대형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유럽연합(EU)의 우주 개발 주관기관인 유럽항공우주국(ESA), 미국 UC버클리 우주과학연구소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우주 탐사 연구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 최초'의 도전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최초의 기상 관측 전용 위성 '천리안 2A호'의 우주 기상 탑재체를 개발한 데 이어 2022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과학 탑재체를 개발했습니다.

## 경희의 새 도전 '양자과학' 노벨상 수상자 센터장 초빙

우주과학 분야에서 '한국 최초'의 도전에 힘을 실어 온 경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주과학 분야를 포함해 바이오헬스, 양자과학, 첨단소재, 인공지능(AI), 인류문명을 6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양자과학 분야에서는 석학과 우수 연구자를 모아 2024년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핀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와 한국인 최초의 벤저민 프랭클린 메달 수상자인 김필립 하버드대 교수를 ES(Eminent Scholar)로 초빙했습니다. 노보셀로프 교수는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아 경희의 양자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는 양자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경희의 양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차세대 양자 물질', '맞춤형 양자소자 개발', '최적화 검증'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물리학과 손석균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설립됐습니다. 경희는 양자 기술 사업화와 산업 전문 교육 과정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2A호 우주 기상 탑재체, 다누리 자기장측정기 개발 등 우주 분야에서 탁월성을 쌓아온 경희는 관련 분야에서 연계협력을 확대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에 경희 기술력 탑재

경희는 2012년과 2013년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 지속해서 '우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상 관측 전용 위성 '천리안 2A호'의 우주 기상 탑재체 개발, 2022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자기장측정기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6년 발사 예정인 무인 달 착륙선에 탑재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도 개발했습니다. 경희가 천문학 및 태양활동과 우주환경 분야에서 선두 연구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공공성' 추구

세계 19위, 세계 사립대 1위, 경희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5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받은 성적입니다. 이 평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를 측정합니다. 연구 성과를 평가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적·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인가'를 들여다봅니다.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즉 '공공성'을 평가 잣대로 삼아 인류와 문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살피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 따라 사회공헌에 앞장서 온 대학이 상위권에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경희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실현의 탁월성이 입증됐습니다.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 '평화의 탑'

**“평화는 개선(凱旋)보다 귀하다.”**

평화복지대학원 '평화의 탑'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경희의 평화사상을 함축하는 이 문구는 전쟁 없는 평화를 넘어, '인간적인 문화세계' 건설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어려운 타인과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 그 성취를 나누고자 하는 경희의 이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

## 평화로운 미래 지향하는 경희의 설립 정신

경희는 세계대전의 비극적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발한 한국전쟁 중에 태동했습니다. 나라와 겨레의 생존과 자존이 절실하던 시절, 경희는 비운의 역사적 현실을 헤쳐갈 강인한 생명력과 삶의 의지를 중시했습니다. 경희의 설립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 인간의 인간적인 문화세계를 견인하는 대자연의 이치와 인간 의식·의지 작용을 공적 실천에 담아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주리(主理)와 주의(主意) 생성론'에 깃든 경희의 사상적·실천적 기초입니다.

경희는 주리와 주의 생성이 작동하는 작용과 기능의 원리를 전승화(全乘和) 철학으로 정립해 초석을 다졌습니다.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세계의 미학을 중시해 왔습니다. 주어진 시대의 난제를 돌파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인류의 책무이자, 권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경희의 오랜 전통인 '학문과 평화'와 평화의 전당에 새겨진 '인간에겐 사랑을, 인류에겐 평화를'이라는 문구는 그 정신을 함축합니다.

---

##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교육기관 최초 수상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경희의 노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는 농촌운동, 자연보호운동, 밝은사회운동, 인류사회재건운동, 네오르네상스운동,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시대와 국가사회가 초래한 난제 해소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각종 국제 학술회의를 주도해 시대의 위기를 직시하고, 교육을 통한 평화 구현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 창립, 1981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경희의 '학문과 평화' 운동이 지구사회로 확장된 상징적 결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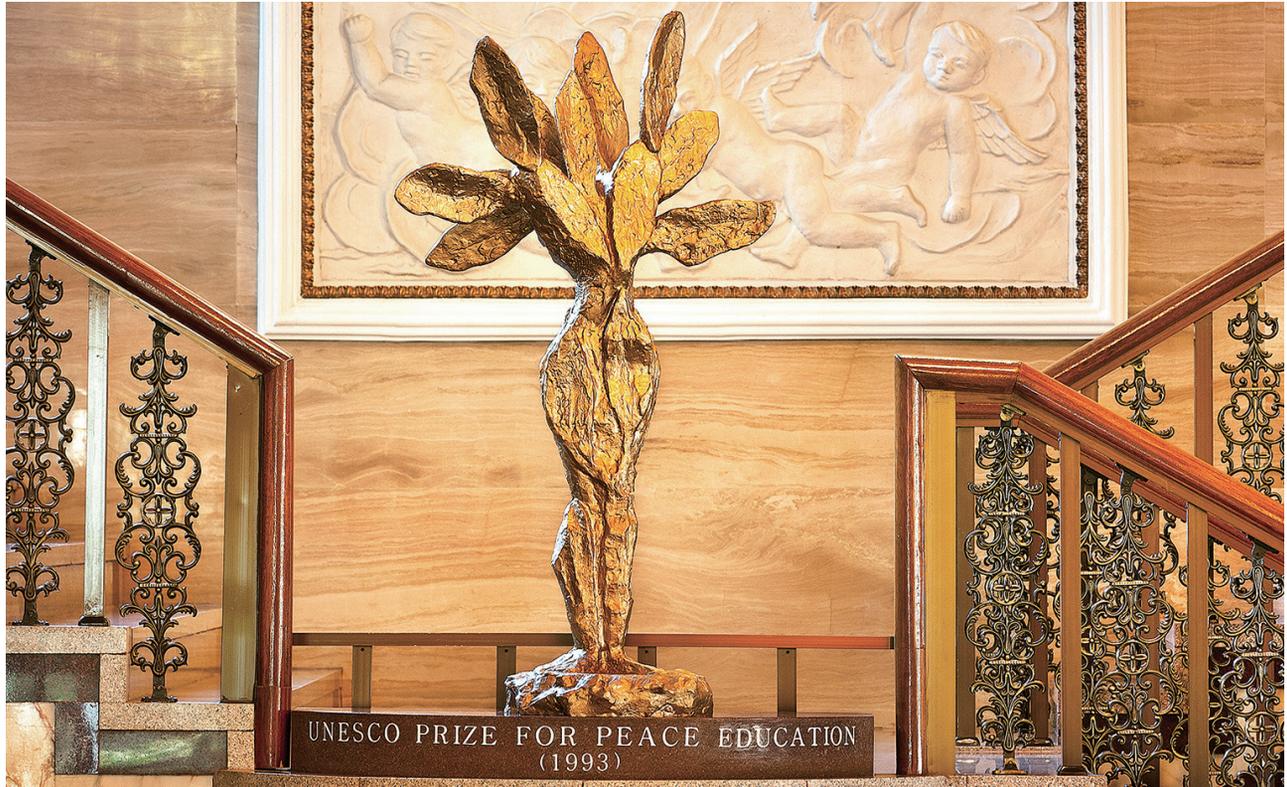
그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 실천의 결합이 교유의 학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희는 1984년 세계 최초의 평화교육기관인 평화복지대학원을 개원했으며, 1986년에는 『세계시민교과서』와 『세계평화대백과사전』을 발간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평화 증진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기여한 경희의 공헌을 높이 평가해 1993년 교육기관 최초로 평화교육상을 수여했습니다. 이후에도 경희는 서울NGO세계대회 개최(1999), 사이버대학교 설립(2001), 세계시민포럼·세계시민청년포럼 개최(2009),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2011), 세계대학총장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공동 개최(2015), 미래문명원 체제 출범(2021)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세계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경희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지속 가능한 인류와 문명의 미래에 기여하는 교육·연구·실천 확대

경희는 2009년 개교 60주년을 기점으로 미래비전 '지구적 존엄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을 선포하고, 학술 성취가 사회와 세계에 기여하는 지구적 실천을 확대했습니다. 세계시민포럼과 세계시민청년포럼 창립은 그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 학풍과 전통은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과 지구사회봉사단(현 글로벌봉사팀)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경희는 두 기관을 중심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세계시민 의식으로 확장되고, 나아가 지구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화복지대학원은 평화 증진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교육기관 최초로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 사회적·지구적 책임을 향한 경희의 실천과 교육 혁신

경희는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Peace BAR Festival(PBF)을 개최하고, 미원лек처, 석학 초청 특강 등 국제 학술대회와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특히 PBF는 인류 의식의 행성적 전환을 위한 사유의 전위이자, 평화 실천의 거점으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경희의 염원이 PBF의 시작이자 지속의 이유입니다. 경희는 이러한 행사를 대중에게 공개해 석학·전문가·실천가의 문제의식과 지적 사유를 공유하고, 성찰적 전환 의식과 실천 세계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지구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교양교육의 전범 구현'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지구적 문제 대응 역량 강화와 실천적 이해의 순환·공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실천형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사회혁신학기'를 도입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중심학습(PBL; 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의 교육 혁신 모델입니다. 학생들은 제주도과 전라남도 영암군 등지에서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방 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경희의 후마니타스 교육은 강의실 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지구적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희는 매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적 실천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활동 모습

###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구적 실천’을 확대하다**

경희는 학문의 탁월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사람, 인류와 문명을 위한 기여’에 있다는 이상을 견지해 왔습니다. 개인과 사회,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속해서 모색하며 ‘더 나은 자신과 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은 경희가 이어온 전통입니다.



‘학문과 평화’의 전통  
세계로, 미래로



## 국제화 국내 1위, 국제 학계 인지도 향상

경희가 '2024 THE 세계대학평가'의 국제화 부문에서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습니다. THE 세계대학평가의 국제화 부문은 외국인 교원 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 파견 교환학생 비율, 국제 공동연구 비율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국제화 순위가 높다는 것은 경희에 대한 외국인 학생과 국제 학계의 인지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글로벌 교류 협력을 확대해 온 결과입니다. 최근 경희는 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와 함께 경희의 전통 '학문과 평화'의 의미를 심화·확대해 지구문명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매년 여름방학에 세계 석학과 국제 활동가를 초청해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을 진행합니다.

### 글로벌 교류 협력으로 국제화 선도

경희의 교사와 교육이념은 언제나 '세계'와 '인류'를 향합니다. 이러한 가치 아래 경희는 설립 초기부터 국제화에 힘써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구적 연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합니다.

---

## ‘세계 속의 경희’ 83개국 625개교와 교류

경희는 창학 초기부터 학문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편, 세계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으로 ‘세계 속의 경희’를 구현해 왔습니다. 그 노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는 전 세계 83개국 625개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세계와 인류를 향한 경희의 노력은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을 계기로 본격화했습니다. 경희학원 설립자는 “고등교육의 힘으로 인류 평화를 구현한다”는 신념 아래 IAUP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IAUP 창립총회는 196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3년 후 1968년 6월 18일, 제2차 IAUP 총회가 경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경희는 국제 교류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문명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 고등교육의 공적 책무· 지구적 소임 실천

2015년 5월, 경희는 옥스퍼드대와 ‘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IAUP 창립에 기여한 경희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 IAUP가 공동 주최를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경희는 2011년에도 유사한 제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 UNAI(UN Academic Impact)가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을 기념해 준비 중인 국제회의를 경희와 공동 주최하고자 의사를 타진해 온 것입니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최초로 제안한 기관이 경희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의를 받아들여 2011년 9월 ‘UNAI-경희 국제회의’가 뉴욕 유엔본부와 평화의 전당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두 행사는 고등교육의 공적 책무와 지구적 소임의 중요성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UNAI-경희 국제회의에는 5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고등교육의 지구적 실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

## 유엔/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경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류 협력 수준을 심화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유엔/국제기구 인턴십’입니다. 국제 무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학생들을 선발해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와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 자문위원회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국제 인권을 주제로 사전 연구를 수행한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HRC 자문위원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

## 석학·실천가와 함께하는 강의 및 연구 확대

경희는 세계적 석학을 영입해 학생들에게 세계 지성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술대회와 특강 시리즈를 연중 개최하며, 매년 여름방학에는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GC)을 개설합니다. GC는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겸 경희대 ES, 이리나 보코바 미원석좌교수(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석학과 국제 활동가, 국제기구 고위 실무자가 참여하는 경희의 대표적인 국제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경희 캠퍼스에서 지구적 의제를 다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화 교육이 펼쳐집니다.



경희는 '2024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제화 부문 국내 대학 1위에 올랐습니다.

### ‘미원평화상’으로 여는 행성적 연대와 협력의 길

경희는 지구사회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문화세계의 창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경희학원 설립자의 공적을 기리며, 지속 가능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 지구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미원평화상’을 제정·시상했습니다. 첫 수상의 영예는 전직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유엔 사무총장,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이 참여해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디 엘더스(The Elders)’에 돌아갔습니다. 경희는 디 엘더스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행성적 연대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더 나은 미래’ 위해 글로벌·공공 협력 강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매년 개최하는 ‘Peace BAR Festival(PBF) 2025’에 디 엘더스, 로마클럽, 유엔, 하벨도서관, 체코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지구헌장 인터내셔널, 라즐로연구소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을 맞아 별도로 행사를 치르던 기관들이 함께 하면서 PBF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희 캠퍼스는 교육·학술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미래세대가 함께한 평화를 위한 담론의 장, 실천의 장이 됐습니다. PBF 2025는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를 성찰하며 행성 의식으로서의 전환과 그에 기반한 행성적 연대라는 공동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희는 이를 토대로 혼돈의 시대를 넘어설 새로운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 확산을 위한 지혜를 널리 공유하고, 행성적 연대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경희가 글로벌·공공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의 행복과 가치, 더 나은 미래는 우리 삶의 터전이 견재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막중한 책무라는 판단 아래, 경희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처한 개인과 사회,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대학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향해**

경희는 그동안 이뤄온 학술 성취와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공공 협력을 활성화해 지구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 경희가 펼쳐나가는 미래입니다.

(사진)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 본관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미래대학 ‘꿈의 공간’으로



## 지속 가능한 문명 건설을 선도하는 미래대학 인프라 확충

학생이 마음껏 꿈꾸고 배우며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경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25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산업·혁신·인프라 분야에서 세계 19위에 올랐습니다. 대학 영향력 평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를 반영해 사회적·지구적 책무 수행을 독려합니다. THE는 SDG 9번 목표인 산업·혁신·인프라 평가를 통해 대학이 자체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용적·지속 가능한 산업화와 혁신을 이루도록 장려합니다. 지속 가능한 문명 건설을 선도하는 미래대학의 길을 열어가는 경희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캠퍼스 본관

### **‘학술 경희’의 미래를 건설하다**

‘경희 캠퍼스’는 국내에서 녹지 공간이 가장 많은 아름다운 캠퍼스로 손꼽혀 왔습니다. 경희 캠퍼스가 그 명성을 넘어 미래대학 ‘꿈의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술의 탁월성 위에 희망의 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합니다.

## 대학의 비전 반영한 경희 캠퍼스

경희는 1954년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울캠퍼스를 건설했습니다. 마스터플랜에는 본관 석조전을 비롯해 현재 서울캠퍼스를 구성하는 주요 건축물과 자연경관 조성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대학의 이념과 가치, 비전에 따라 캠퍼스의 규모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를 계획해 건물을 세웠습니다. 1979년 시작된 국제캠퍼스 건설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따른 건설로 명확한 비전이 캠퍼스에 반영됐고, 체계적이면서 조화로운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교문 등용문(登龍門)에서 '文化世界(문화세계)의 創造(창조)'가 새겨진 교시탑, 교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본관 석조전, 그 우측 언덕으로 웅장하게 솟아오른 평화의 전당으로 이어지는 캠퍼스에는 경희의 미래지향적 이상향이 담겨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경희는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2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새로운 마스터플랜인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에는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경희의 미래비전이 반영됐습니다. 경희는 학술의 탁월성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구공동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 '대학다운 미래대학' 향한 꿈을 담아내는 인프라

구성원의 꿈과 포부를 지원하고 미래대학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1단계 공사를 완공한 경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전통과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꿈을 담아내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서울·국제 양 캠퍼스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미래과학 클러스터 등을 아우르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Space21' 1단계 공사를 통해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선승관(善昇館)'이 개관한 데 이어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행복기숙사(공공기숙사) 건물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건물 리모델링을 포함한 'Space21'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산학협력관 건립, 글로벌타워 신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Space21' 사업으로 경희 캠퍼스는 최적의 교육·연구·실천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선승관(善昇館)', 외국어대학 로비

## AI 연구·실습 위한 서버실, X-Space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간 중심의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서버실과 X-Space를 구축했습니다. 대규모 서버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AI 연구·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실감미디어 실습 공간인 X-Space는 메이커(Maker) 교육, 산학협력 활동,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강의실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모델링 기술과 실시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동한 가상 강의실은 원격 수강생에게도 현장 수업 못지않은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 AI 에이전트 탑재한 확장현실(XR) 학습공간

경희는 최근 산학연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희는 교육과 산업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생태계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교육 혁신으로 확장해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확장현실(XR) 학습공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데이터 스페이스를 연동하면 학습자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교육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경희 공학’ 미래 준비하는 공학관 분관(ANNEX)

경희 공학은 융합과 혁신, 도약을 향한 비전과 의지를 담아 공학관 분관(ANNEX)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격차 융합기술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수립한 경희 공학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경희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주요 중점 분야는 △첨단 소재(반도체, 이차전지, 탄소, 디스플레이) △축매·AI △환경(수처리, 공기질, 기후변화·탄소중립) △원자력(안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데이터·AI)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로봇(피지컬 AI(Physical AI))입니다.

ANNEX는 경희 공학의 100년을 준비하는 혁신·협력 플랫폼입니다. 구성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미래대학의 교육·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융복합 공간을 갖춰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할 첨단 융합기술을 선도하고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 공학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인프라 확대

경희는 학생들이 다양한 상상과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 새로운 진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진출 방향을 폭넓게 모색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육공간과 창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회진출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창업 육성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현재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 진단과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동시에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마트캠퍼스 앱과 모바일 학생증을 우선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경희는 이러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 **‘대학다운 미래대학’ 인프라 구축**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과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꿈을 담아내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탁월성 위에 세계 명문으로 도약하고 그 성취를 실천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전 학문 분야 아우르는 서울·국제·광릉 3개 캠퍼스

경희의 역사는 한국전쟁 중 피란지 부산, 판자로 지어진 작은 임시교사 세 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희는 서울캠퍼스·국제캠퍼스·광릉캠퍼스 등 3개 캠퍼스를 갖춘 국내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설립 초기 3개 학과에 불과했던 교육 편제는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23개 단과대학, 95개 학과(부), 15개 대학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경희는 각각의 캠퍼스를 특성화한 종합캠퍼

“  
피란지 판자 교사에서  
3개 학과로 시작한  
경희는 3개 캠퍼스,  
95개 학과(부)를 둔  
종합대로 성장했습니다.

”

스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울캠퍼스는 인문 사회, 의학, 기초과학, 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국제캠퍼스는 공학, 응용과학, 국제학, 현대예술, 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으로 특성화했습니다.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은 경희의 평화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희에는 1,395명의 전임교원과 1,1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학생 수는 3만 5천 명에 이릅니다.

##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는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아래 학술과 실천의 결합으로 평화로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경희정신을 싹틔우고 꽃피운 '학문과 평화'의 요람입니다.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일관교육 체계, 전인교육 기반의 전일적 학술 체계, 지구적 실천 운동이 서울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14



## 국제캠퍼스

국제캠퍼스는 국가가 시급히 요청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특색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학제를 구성하고, '뉴 칼리지 시스템(New College System)'을 도입했습니다. 사회맞춤형·산학협력·국제화·융합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학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전화** 031)201-3114



## 광릉캠퍼스

광릉캠퍼스에는 국내 최초의 전문 평화교육기관인 '평화복지대학원'이 자리합니다. 평화복지대학원은 '세계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중합문명사회를 선도할 실천적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평화 구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세계 대학 최초로 유네스코(UNESCO) 평화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전화** 031)570-7012~6





## 학술 탁월성 추구하는 단과대학 23개·대학원 15개

경희는 단과대학 23개와 대학원 15개(일반대학원 1개, 전문대학원 4개, 특수대학원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원)은 학문의 탁월성 확보와 미래지향적 교육 및 학습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전문기를 길러냅니다.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존중해 온 경희는 자율운영을 통해 단과대학(원)과 부속기관의

“  
단과대학과 대학원은  
학과별·전공별 특성을  
살려 나가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학사·인사·발전계획 수립·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주요 권한을 단위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각 단과대학(원)은 고유한 학과별·전공별 특성을 살려 나가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 학문 분야가 고루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각 학문 분야의 탁월한 성취는 대학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주요 대학평가의 순위 상승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단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경희는 대학교육의 근본적 역할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교양교육을 혁신해 2011년 전문 교양교육기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했습니다. 무엇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대학교육과 시민교육을 연결하는 창의적 교육 방법을 통해 삶과 문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을 넘나드는 융복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은 1년간 특정 전공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인문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탐색을 거쳐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전공을 선택합니다. 자율전공 학부에 남아 글로벌리더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법학을 기본으로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는 이 전공을 통해 융합적 사고·혁신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 목표에 따라 1년 동안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문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학문 소양을 쌓으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학습 여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계열에 상관없이 국제캠퍼스 개설 학부(과)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PostModern음악학과 제외).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응용영어통번역학과, 사학과, 철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각 학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며, 인간적 삶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인문학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유를 존중하는 인문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미디어학과,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국제통상학전공, 국제금융투자학전공)에서 3천 명에 달하는 학생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을 탐구하고, 통상·금융 분야의 글로벌화와 발전에 관한 심층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빅데이터응용학과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경영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의료경영, 금융보험, 재무회계, 빅데이터경영 등 5대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미래학·역사·경영철학에 공간을 두면서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경영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과, 조리&푸드디자인학과,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관광학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호텔관광 분야에서 2025년 'Global Ranking of Academic Subjects(GRAS)' 세계 17위·국내 1위에 올랐으며, '세계 상위 1% 피인용 우수 연구자(HCR)' 2명을 배출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소재·발광소자학전공, 구동소자·시스템학전공)를 통해 자연과학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폭넓은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디스플레이 관련 연구소를 교육에 활용하는 한편, 양자 분야에서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초빙해 양자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주거환경학과, 의상학과, 식품영양학과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및 인접 학문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융합적 사고를 증진하는 데 주력합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 지향적 생활서비스 상품의 디자인·생산·활용을 모색하고, 학제 간 공동연구를 통해 생활서비스 제품의 생산기술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를 통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의사와 의과학자를 길러냅니다. 2025 THE 세계의과대학 평가에서 국내 5위에 오르며 그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학연구 교육과정, 학생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진단은 물론 연구 역량을 갖춘 의료인, 의료산업화, 의료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의료인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한외과대학** 한의예과, 한외과를 통해 통합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임상외과 연구 인력을 배출합니다. 타 학문과의 연계·융합이 가능한 기초교육, 임상실습센터 활성화를 통한 임상교육을 바탕으로 의학 전반은 물론 기초과학과 인문 분야까지 아우르는 융복합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 학생들은 치의예과와 치의학과 과정을 거치며 치과 임상외과와 치의학 연구자로 성장합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과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진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생 피드백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약학, 한약학, 이학, 의학, 한의학, 공학, 농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들이 융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 약학 분야에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약사 로봇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약학 교육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를 통해 동서 간호의 통합적 접근으로 전문직 간호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인정받아 '2023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에서 세계 51~100위, 국내 3위에 올랐습니다. 학생 개인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나이팅게일 인증제'를 운영해 학생들이 창의적인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음악대학**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관현전공, 피아노전공)는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통해 연주자와 작곡가, 음악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아우르는 교육과정과 자체 무대 시설을 갖춘 리사이틀홀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연주 경험과 음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술대학** 미술학부(한국화전공, 회화전공, 조소전공)를 두고 있습니다. 순수 미술, 뉴미디어아트(비디오아트, 그래픽 디자인, 애니메이션, VR·AR·XR 등 실감형 콘텐츠, 인터랙티브아트 등), 전시 기획과 경영 전문가 과정을 포괄해 교육합니다. 학생 재능을 찾아주는 교과과정, 해외대학 학점교류, 사회와 연결된 실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무용학부** 무용예술의 창작활동과 이론화 작업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강화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춤에 대한 경험을 쌓고 창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레퍼토리 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한국무용전공, 현대무용전공, 발레전공을 두고 있으며, 무용-한의학 트랙을 통해 동·서양 무용 치료의 방법론을 융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과대학**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지능로봇공학전공, 항공우주모빌리티전공),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건축학과(5년제)를 두고 있습니다. 전공 간 경계를 허물고 학문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제를 개편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부 전자공학과, 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과, 생체의공학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자공학부는 반도체와 스마트 통신기기 등 한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자공학 핵심 기술을 연구·교육하며, 생체의공학과는 공학과 의학을 접목해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다룹니다. 경희는 통신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역량을 인정받아 2025 상해 학문 분야 평가(GRAS) 세계 31위, 국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운영합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 임베디드시스템 SW,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분야를 주로 다루며, 인공지능학과는 AI 핵심 교육을 바탕으로 융합과 실천 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융합 분야를 선정해 특화된 개발 역량을 기르는 데 주력합니다.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 우주과학과를 통해 기초과학에서 첨단기술 활용까지 폭넓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응용수학과는 전산·금융·보험·암호 등에 활용되는 수학을, 응용물리학과는 반도체·나노소자·광학·응용전산물리학·태양에너지 분야를, 응용화학과는 전통 화학과 더불어 분자설계, 고분자·재료, 의약·나노 분야를 다룹니다. 우주과학과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과학 탑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탐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대학** 다양한 생명체의 계승 서열이 밝혀지고 바이오 분야의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생명공학 분야가 의약, 농업, 에너지, 환경, 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생명과학대학은 학과 개편을 단행해 유전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스마트팜학과와 체제를 갖췄습니다. 생물 산업과 생명공학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교육·연구하기 위해 생명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 국제학과, 아시아학과(글로벌한국학과)로 이뤄져 있으며, 모든 전공 수업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국제학과는 국제관계,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개발협력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국제학 단일 전공, 혹은 각 분야의 심화 전공 트랙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학과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외국인인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어문전공, 영미문화전공)를 두고 있으며,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융복합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세계 주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전공·부전공·융합전공을 확대하고, 교환학생과 해외 전공연수, 인턴십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도예학과, 연극영화학과, PostModern음악학과에서 종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창의적 디자이너, 문화콘텐츠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영상 전문 크리에이터, 창조적 조형 역량을 지닌 실험적 아티스트를 양성합니다. 독창적 디자인 문화 조성 과 미래 지향적 생활공간·첨단 영상 예술 창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태권도학과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태권도, 배드민턴, 필드하키, 아이스하키, 럭비, 쇼트트랙, 체조, 양궁 등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전문인력과 지도자를 키워냅니다. 운동처방실, 측정평가 및 해부생리 실험실, 저압·저산소트레이닝센터 등 실험실과 첨단 체력 트레이닝 시설, 7,900평 규모의 체육교육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 융합전공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학문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융합전공 학과(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기존 전공 대신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심화전공과 다전공, 부전공으로도 이수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사회과학 융합전공**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미디어학과, 무역학과

**과학지능정보 융합전공** 물리학과, 수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

**KA(Korean-Anglophone) 콘텐츠비평 융합전공**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차세대디스플레이소재 융합전공**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물리학과, 화학과

**차세대디스플레이소재광학 융합전공**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물리학과, 화학과

**차세대디스플레이구동시스템 융합전공**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물리학과, 화학과

**차세대디스플레이디자인 융합전공**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물리학과, 화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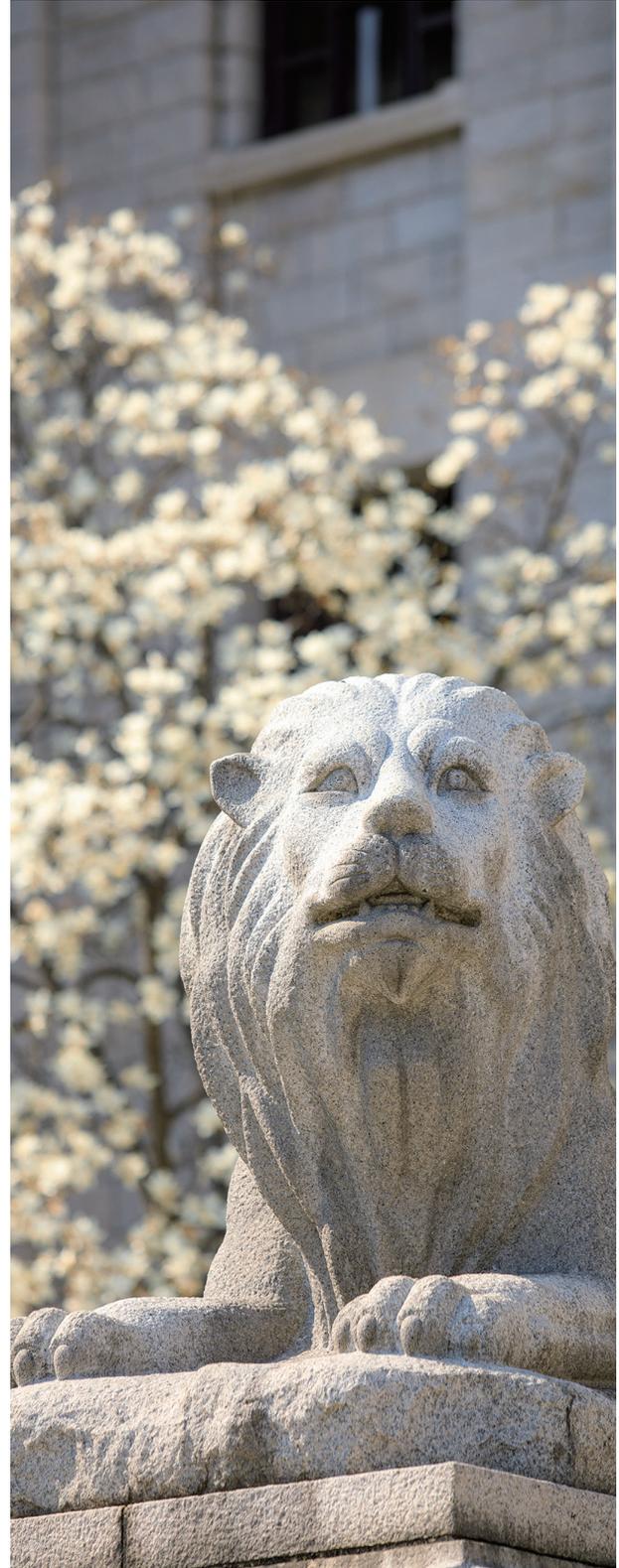
**차세대에코디스플레이 융합전공**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물리학과, 화학과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공**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스페인어학과, 프랑스어학과, 러시아어학과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 일본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4D아트 융합전공** 도예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양자정보 융합전공** 응용물리학과, 응용수학과, 응용화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아트&테크놀로지 융합전공** 디지털콘텐츠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K-퍼포밍아트 융합전공** 연극영화학과, PostModern음악학과

**실감미디어 융합전공**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우주인공지능 융합전공** 우주과학과, 컴퓨터공학부

**첨단바이오소재 융합전공**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첨단중지푸드테크 융합전공** 유전생명공학과, 스마트팜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인공지능반도체 융합전공** 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일반대학원

전공 심화 학습, 융복합 연구와 산학협력, 복수학위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등을 통해 세계 수준의 교육과 연구,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학·연·산 협동과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학연구원, KT&G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등 21개 기관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단계 두뇌한국(BK) 21,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ITRC), 대학중점연구소, 규제과학 인재 양성사업,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미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전문가와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을 포함해 약 3,7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경영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문 분야·해외 지역 연구를 연계한 매트릭스형 교육, 전 과목 영어 진행, 외국인 학생 비율 50% 이상 유지, 해외 우수 대학과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제 교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 국제적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법률가로서의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실무과목을 포함해 121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변화하는 법학교육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 변호사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용 기숙사를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장학제도 및 해외 우수 로스쿨과의 국제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학원** 스포츠의·과학전공, 태권도학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경영전공, 스포츠 DNA+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스포츠산업 융복합대학원 선정을 계기로 2024년 신설한 스포츠 DNA+학과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융복합형 인재 양성에 주력합니다.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양 의학을 접목한 신의학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동서양 의학과 생명과학, 영양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적 융합 대상을 사회학까지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친고령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선정으로 개설한 노인학과를 비롯해 동서의학과, 의학영양학과, 융합건강과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내 대학원 최초로 최고경영자과정(AMP)과 의료경영, 문화예술경영, 아시아경영, 학군 재휴 교육장을 신설해 시대를 선도하는 경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경영학과, 의료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세무관리·회계학과, E-MBA학과, 부동산학과, 융합경영학과, 미디어&커머스학과 등으로 전공 영역을 확대했으며, 영어 프로그램인 Keystone MBA, 중국어 프로그램인 Asia MBA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상업교육, 생물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중국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영양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예비교원을 길러냅니다. 이외에도 학교 현장의 교원, 교육전문가를 위한 재교육과 연수를 실시합니다.

**간호대학원**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고, 국내외 보건 의료 환경을 선도하는 상급 간호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노인전문간호사전공, 정신전문간호사전공, 임상간호전문가전공, 융합건강간호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건강위험을 예측·분석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중재 및 근거 개발 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 간호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대학원**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의 공적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가-시민사회 통합교육 기관으로서, 로컬과 글로벌을 잇는 다양한 전문 분야를 다룹니다. 정책학과, 의료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시민사회·NGO 학과, 글로벌거버넌스학과에서 각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소양을 함양해 전문 지식을 보편 상식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합니다. 계약학과를 개설해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평화복지대학원** 세계평화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나아가 영구적으로 구현하는 길을 걷는 평화 지향적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교육하면서 평화 구현에 기여한 실천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학 최초로 1993년 유네스코(UNESCO) 평화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학전공)와 국제평화-거버넌스학과(국제평화전공, 평화안보정책전공)를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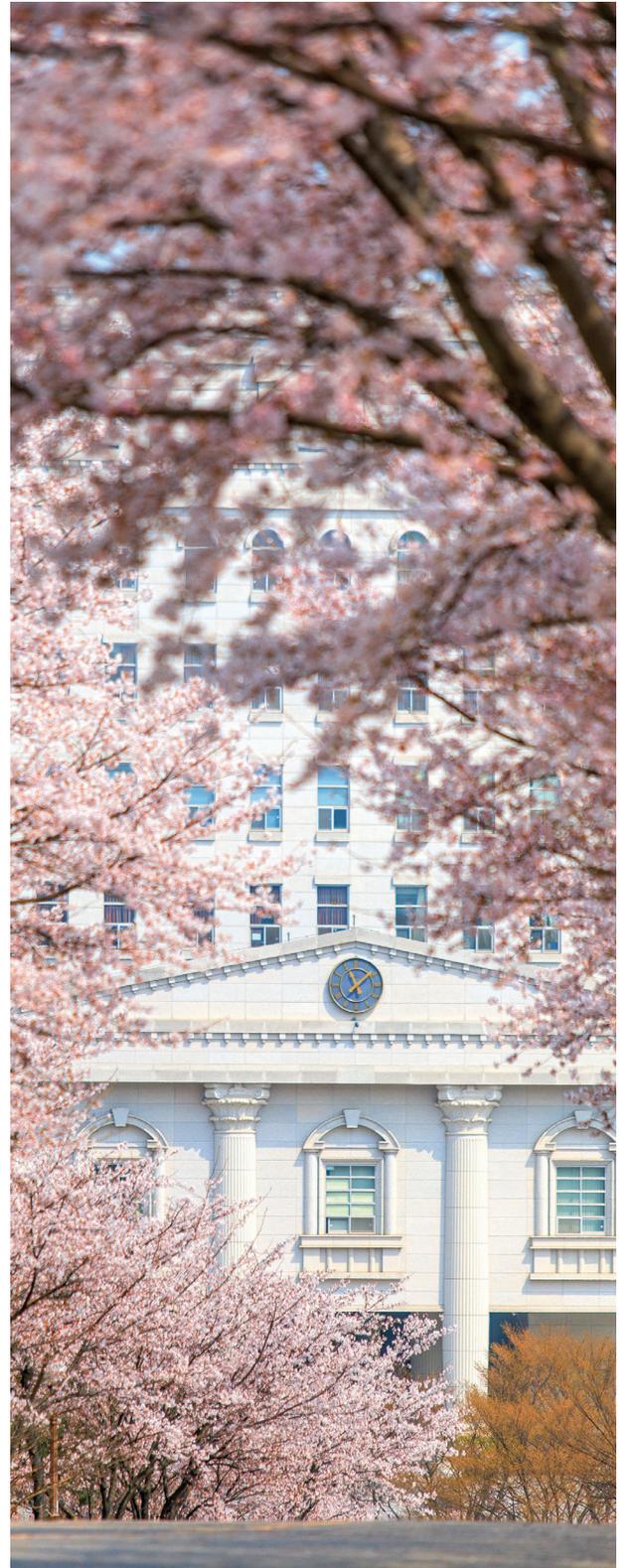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미디어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저널리즘학과, 전략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디지털미디어플랫폼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디지털 커머스·쇼호스팅, AI·데이터 커뮤니케이션, K-컬처·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전문가 트랙을 개설해 실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법무대학원** 기업법, 자산관리법, 지적재산법, 입법, 공법, 경찰·안전법, 조세법, 관세법 등 분야에서 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연구·교육하고, 산학협동 체계를 강화해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법학과, 건설법학과, 조세법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관광대학원** 관광학 석사학위 과정으로 호텔·서비스경영학과, 관광학과, 컨벤션전시경영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 와인·소믈리에학과,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에 외국인 전공 학과인 글로벌문화관광경영학과를 신설했으며, 와인·위더티 마스터 소믈리에 전문가 과정(2학기), 퍼스트 클래스 리더(FCL) 과정(6개월) 등 특별연구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건설안전경영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심리상담경영학과, 디지털융합학과 등 석사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학과로 글로벌경영학과, 미래혁신경영학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계약학과로 시기술경영학과, 스마트기술경영학과, 반도체융합학과를 개설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대중예술 분야와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현장 실무에 특화된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용음악학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를 통해 대중예술과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 크리에이터,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창업가 등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질병 없는 인류사회’ 건설을 향한 경희 의료기관

경희 의료기관은 의·치·한의학 복합의료 기관인 경희의료원과 신개념 진료 패러다임을 구축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 의료기관은 교육·연구·진료와 글로벌·공공 협력이라는 대학병원의 포괄적 사명, 사회적 책임에 집중하며 ‘질병 없는 인류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학을 향한 혁신을 거듭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2025년 발표한 ‘의료 질 평가’에서

“  
독보적인 학제 간  
협력과 공공 협력으로  
대학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희대병원은 전국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중 최고 등급을, 강동경희대병원은 종합병원 중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 중심 병원’ 인증을 통해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연구를 선도하는 병원으로도 인정 받았습니다. 중증·희귀질환 진료 강화, 필수 의료 확대, 맞춤형 방사선 암 치료기 도입 등 진료 시스템 혁신과 독보적인 학제 간 협력 구조가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 경희의료원

경희의료원은 1971년 10월 5일 개원했습니다.  
의료원 설립은 의사 양성이나 환자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적인 질병을 몰아내어 '인류사회 재건'의 일익을  
담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최신 의료 기술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희귀·난치·중증질환의 조기진단 및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국내 최초로 의대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3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의료 질 평가 최고 등급, 연구 중심 병원 인증,  
환자 경험 평가 상위권 랭크를 통해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전화** 02)958-8114

### 신하 의료기관

경희대학교병원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  
후마니타스암병원

##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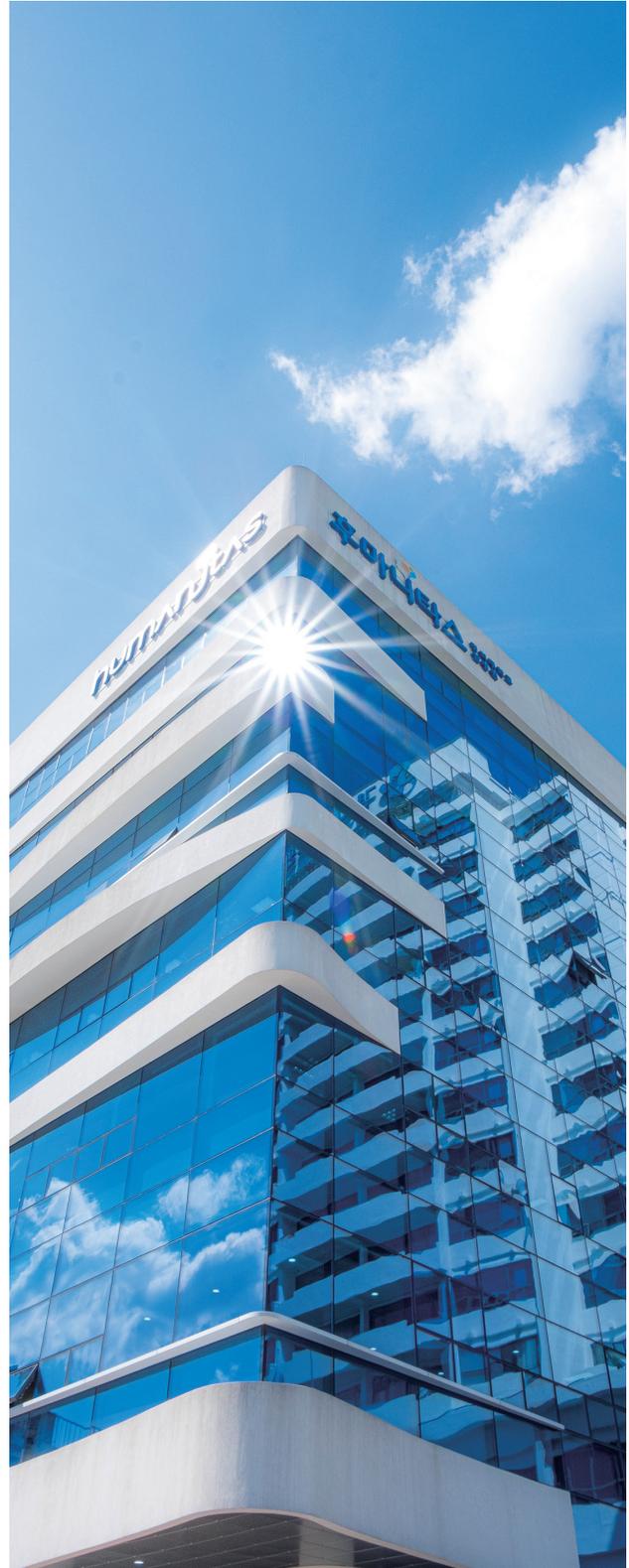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006년 6월 12일 개원 이래  
'수술 잘하는 병원'이라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소성 부분 보조 간이식(APOLT) 수술에 성공했고,  
고난도 수술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의료 역량을 입증해 왔습니다.  
척추·관절·뇌수술을 비롯해 암, 장기이식, 로봇수술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 의료 질 평가'에서 종합병원 상위 1%를 기록하며,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임을 입증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진료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 중심의 최첨단 병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전화** 1577-5800

### 신하 의료기관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광릉캠퍼스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